

청년 일자리 창출·머물다 가는 목포 만들기 '올인'

민선 6기 남은 1년 목포 시정 키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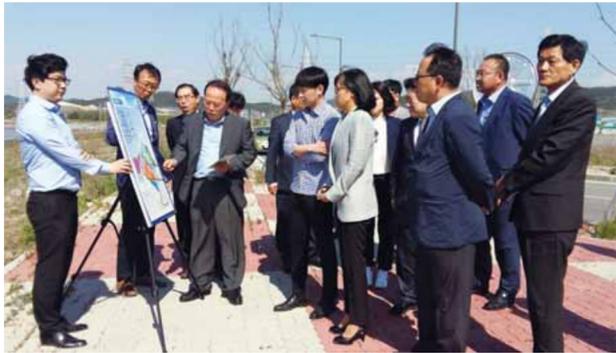
박홍률 시장이 이끄는 목포시장의 후반기 핵심 키워드는 '청년과 일자리', '관광'이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수산식품 거점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재정 위기를 헤쳐온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목포', '가보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대양산단 투자 협약 체결



수산식품 수출단지 KDI 현장 실사.



대양산단 조감도

◇'청년·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박홍률 목포시장은 남은 1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를 슬로건으로 강도 높은 재정 정책으로 '재정 건전화'로 일궈낸 역량을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게 목포시 복안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단지'로 육성할 대양산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대양산단을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산업 단지로 키우겠다는 게 목포시 구상이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에 신규 입주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력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가 하면, 대학생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청년 창업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대양산단에는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의 핵심인 수산식품 수출단지(2만3000㎡)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되면 60개 수출 기업이 입주, 본격적으로 산업 활동에 나서게 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로 발생하는 생산유

■ 청년 일자리 늘리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대양산단 청년 채용 장려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지원
푸른돌 청년상인 적극 육성

발효과과면 2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도 734억원에 이르고 1430명의 취업유발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시는 또 전남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문화예술 및 정촌 창업지원 사업에도 행정의 관심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73억원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투입기로 했다. 당장,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지원되는 한편, 청년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박 시장의 목표호는 '서해안 해양관광도시'

■ 국제해양관광도시 만들기
해상케이블카 내년 가동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목포 크루즈항 개발 등
4계절 체류형 관광지 도약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는데 총력을 쏟아왔다.

특히 3차례나 번번이 무산됐던 해상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착공은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목포시 설명이다.

해상케이블카는 '잠깐 들렀다 가는' 목포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목포시 판단이다. 4계절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얘기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와 맞물려 200억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관광루트 테마

거리', 어류문화관·만인계 웰컴센터,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대는 활기를 목포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통 시장으로 목포 비전 찾아=박홍률 목포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부채에도,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시민의 상상력으로 목포를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확실히 세웠다.

수차례 무산됐던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대양산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데도 박 시장의 추진력이 한몫을 했다.

여기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지역 공약인 '수리조선평화산단 조성', '목포 크루즈항 개발' 뿐 아니라 '해양산업클러스터', '테마여행 10선으로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등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목포지역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청년들이 정책 디자인하는 '청년동행' 추진 대양산단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박차"

박홍률 목포시장 인터뷰

-남은 1년, 시정 방침과 역점 시책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힘을 쏟겠다. 산단 분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할 때다.

해상케이블카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유달산·고하도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뉴 관광 프로젝트'도 속도감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관심을

쏟겠다.
산업 구조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야할 때다. 대양산단에 해양수산 융복합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한편 에너지 벨리 관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는 것도 이러한 다변화 전략 중 하나다.

-요즘 청년 일자리가 화두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목포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다.

청년협의체인 '청년동행' 위원을 모집,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디자인하도록 할



생각이다. 목포시 청년 실태, 청년정책의 방향과 비전, 청년정책 전략사업 등이 포함된 '제 1차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

역도 발주한 상태다. 지난 1월 청년정책을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도 제정했다. 또 생활형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중양시장 내 빈 점포 10개소를 청년 물로 지정하고 예비 청년상인 18명을 선발 체계적인 창업컨설팅 교육을 실시중이다.

-민선 6기 공약, 얼마나 지켰나.
▲현재 공약 이행률은 74.3%다. 민선 6기에 내걸었던 공약은 6개 분야에서 49건이다. 현재 21건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약속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지역공동체와 인구정책 전문 부서를 신설했나.
▲공동체 담당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담당은 출산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영역별 정부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신설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미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